

현진건의 문학적 후견인과 개인적 재능

- 「희생화」, 「지새는 안개」를 중심으로 -

남상권*

|| 차례 ||

- I. 서론
- II. '고백체'에 녹아든 가족사의 그림자
 - 1) 작가의 길, 기자의 길
 - 2) 자기 연민으로부터 회상되는 가족사
- III. 빈곤의 탐색으로 그린 조선의 얼굴
- I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현진건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대구와 작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인물[후견인]들에 대해 자전적 소설을 토대로 논의했다. 주 논의 대상으로는 단편소설 「희생화」와 「지새는 안개」이다. 현진건의 첫 소설 「희생화」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가족사적 비극을 내포한 작품이다. 「희생화」는 <개벽사> 문예부장이던 당숙 현희운의 주선으로 <개벽>지에 발표되었다. 이 소설에서 독립운동가였던 셋째 형 현정건의 결혼 파탄의 시초와 해외 망명의 동기를 추정케 한다. 「지새는 안개」에서는 현진건이 기자로서 취업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후원자를 얘기하고 있다. 「지새는 안개」를 통해 그간 알려져 있지 않았던 현진건과 숙부 현영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희생화」, 「지새는 안개」는 현진건 형제와 서울 친척들 간의 긴밀한 유대가 드러난 작품으로 논의한다. 이 두 소설의 등장인물에게는 대구가 고향이라는 의미와 함께 가족사의 위기를 내포한 공간이다. 하지만 현진건이 개인적 재능과 성공한 작가로서 뒤돌아 본 대구는 빼앗긴 땅, 빈곤의 땅으로서 민족사의 비극을 담아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현진건의 수필 「여름과 맨발」을 통해 현진건의 빈곤 소재 작품에 나타는 빈곤층에 대한 체험적 통찰과 연민을 살필 수 있다.

주제어: 자전적 소설, 후견인, 개인적 재능, 현정건, 현영운, 현희운, 가족사, 민족사, 빈곤

I. 서론

대구 시절의 현진건을 발견하는 것은 숨은 그림 찾기와 같다. 그래서 현진건의 기억을 통해서 대구의 근대를 재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기념적일 수 있지 않을까? 현진건이 남긴 제한된 글을 통해서 대구에서의 흔적을 살피는 것 역시 봄날 눈앞에 아지랑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형체가 또렷하지 못하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혼인까지 한 사람, 출향하여 문명을 날리던 이 사람이 이따금 귀향하여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집 삼작을 향해 뒤뚱거리며 걸던 모습을 동네 이웃과 친구, 친지들은 분명 보았을 터이다. 소시적 뽕나무골 서당에서 함께 공부했던 학동들은 현진건이 잘나서 너무 멀어진 것인가. 노동야학교에서 신학문을 함께 익혔던 친구들은 뽕뽕이 흩어져버렸는가. 17세에 귀향한 현진건을 만나서 사귀었다는 『백조』 동인 백기만의 『씨뿌린 사람들』은 서울에서의 현진건을 일부 그려내고 있지만 대구와 관련된 사실은 소략하고 부정확하다.¹⁾ 현진건과의 우정으로 백조

* 영남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강사

- 1) 백기만의 『씨뿌린 사람들』은 오늘날 현진건 연구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현진건의 가족사적 부분은 상당 부분 소설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또 자신이 직접 들었던 이야기라 할지라도 부정확한 기억 때문인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현진건의 형 현정건이 축구를 잘했다는 기록은 백기만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는 현진건의 8촌 형인 현상건의 아들 현정주와 혼동한 것이다. 현정주는 중국 상해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했고 해방 후 대한체육회 회장 등을 역임했던 체육인이다. 또 현정건의 부인 윤덕경을 윤치호의 7촌 조카로 소개했다. 윤덕경은 양산 출신으로 고종 23년에 문과 급제하여 동래부사 및 승정원 승지를 역임한 윤필은의 딸로 본관은 파평 윤씨다. 윤치

동인이 되었다는 이상화는 명작을 기대를 하는 몇 줄 논평만 남기고 있다.²⁾ 이상화는 현진건을 통해 박종화, 최남선 등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후일 자신의 사촌 형 이상악과 최남선이 사돈을 맺을 수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날 현진건의 생애의 고향이자 문학적 고향이기도 한 대구에서조차 현진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려 해도 동시대인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³⁾

현진건이 대구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의 가계는 본래 서울에 세거하고 있었다. 현진건의 부친 현경운이 1895년 관임관으로서 대구에 부임한 이후 정착하였지만 1946년 그가 사망한 직후 남은 가족마저 모두 대구를 떠났다.⁴⁾ 현진건이 대구의 근대 거리를 누볐던 발자취도 거의 지워졌다. 대구에서 현진건 가족이 50년 간 살았던 흔적은 작품 속에서나마 어렵듯이 엿볼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서 대구가 현진건을 기념하기 위해 그를 소환할 때면 그의 호처럼 빙허에 기대어 얘기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구에서의 학업과정, 짧은 일본과 중국 유학 기간 중에 교제한 벗들은 누구이며 문학사적으로 언급할만한 소양을 어떻게 길렀는가 하는 점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진건은 1920년 전후로 형성되기 시작한 근대 문단의 청년 문사들 사

호는 해평 윤씨로 윤보선 전 대통령의 백부다. 백기만 『씨뿌리는 사람들』, 문화서점, 1959. pp.16-19.<참고>

- 2) “想涉 憑虛 稻香가튼 이들은 하로 일즉 遊蕩生活(쪽 誇張된 말일지 모르나 하여간 기분상으로도)을 바리고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오늘 朝鮮의 생활을 觀察한 데서 어든 感觸으로 第一義的 大作이 될 만한 叢書를 짓기로 지금부터 着工하였스면 한다.” 이상화, 「文壇側面觀, 創作意義 缺乏에 대한 考察과 企待」, 『개벽』58, 1925.4.1.
- 3) 현진건의 대구 친구로 이상화를 가장 먼저 떠 올릴 수 있겠지만 이상화와 같은 날 세상을 떠났고 현진건과 대구의 기억은 거의 백기만의 『씨뿌린 사람들』에 의지하고 있다.
- 4) 남상권, 「현준건과 현진건의 대구와 서울」, 『어문학』, 제142집, 2018, 12. p.292.

이에서는 학연과 지연 등으로부터 익숙지 않았던 이름과 얼굴이다. 현진건이 김동인과 염상섭처럼 청소년기에 일본 유학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았다. 또 대개의 근대 문인들이 『소년』, 『청춘』, 『학지광』 등의 잡지를 통해 근대 문학에 눈을 뜨고 『창조』나 『폐허』 등을 통해 문단을 주도했던 사실과 다른 경로로 등장했다. 현진건이 대구에서 이상화, 백기만 등과 『거화』라는 ‘작문지 『거화』의 시험’을 했다고 하지만 이 주장을 실증할 근거는 없다.⁵⁾ 이런 점에서 대구를 떠나 일본과 중국을 경유하여 서울에 정착하게 된 현진건이 당숙 현희운의 도움으로 1920년 『개벽』지에 「희생화」를 발표하여 문단에 등장한 것은 상당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⁶⁾ 또 「희생화」 발표 직후 기자로서의 취업도 온전히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근대 문학사에서 현진건이 남긴 자취는 크다. 기자로서 남긴 자취도 적지 않다. 작가로, 기자로서의 등장 이후 그가 이룬 만만치 않는 성과에 대한 논의는 풍부다. 하지만 재능 있는 작가, 역량 있는 기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지금까지 현진건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와 기자로서의 입문을 도운 후견인의 존재를 그의 자전적 소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먼저 논의하게 될 작품은 현진건

5) 백기만은 『씨뿌린 사람들』에서 “1917년 그가 상해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서로 뜻이 맞아서 곧 친밀하여졌으며 그와 상화와 상백과 나와 네 사람이 작문지 『거화』를 시험해 본 것도 그해(1917)의 일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중국 유학과 일본 유학의 순서를 혼동하여 서술한 것이다. 이 시기(1917~19) 어느 지점에 『거화』를 ‘시험(試驗)’했다는 것은 동인지를 발간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가능성을 타진했을 정도가 아닐까 한다. 백기만, 앞 책, p.17.

6) 현희운은 문학사에서는 현철이라는 필명으로 더 알려져 있다. 현진건이 「희생화」를 발표하기 전에 『개벽』지 8월, 9월 호에 아르쉴바세프의 「행복」과 쿠르트 뮐첼의 「석죽화」라는 번역 단편을 실었다. 이 두 편의 단편 번역과 게재도 현희운의 배려가 있었다. 양진오, 앞 책, pp.57-58.

의 단편 「희생화」와 「지새는 안개」이다. 또 수필 「여름과 맨발」을 통해 ‘고향’ 대구에 대한 향수와 빈곤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II. 고백체에 스며 든 가족사의 그림자

1. 작가의 길, 기자의 길

현진건이 중국 상해에서 귀국한 것은 1919년 2월이다. 혼자 귀국한 것이 아니라 당숙 현회운, 숙형 현정건과 함께 귀국했다. 현회운은 1917년에 일본 유학을 마치고 중국 상해로 가서 연극을 공부하다 이즈음에 돌아온 것이다.⁷⁾ 현정건은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10년 전부터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의 1919년 2월 귀국은 군자금 모집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졌지만 국내에서의 행적은 한 시대를 풍미할 정도로 유명한 가십거리만 남겼다.⁸⁾

현진건은 1918년 일본 유학을 그만두고 대구로 귀향하였다가 형수 윤

7) 현회운(1891-1965)은 연극인, 문학평론가로 널리 알려진 현철(玄哲)의 본명이다. 현회운은 현진건의 친가 기준으로도 5촌간이다. 현회운 아버지는 학두는 현진건의 조부 학표의 친동생이지만 학표의 중부 호민의 양자로 가게 되어서 7촌 사이가 된다. 학표의 중부 호민의 친동생이 현진건의 증조부인 경민이다. 경민, 호민의 형이 한민으로 현진건 선대 가계 가운데 한민의 자손이 가장 번성하였다. 현회운은 1911년 보성중학(普成中學) 졸업한 후 일본과 중국 등지로 유학한 후 1919년 2월 경 귀국하였다. 귀국 후, 예술학원을 설립하여 연극반과 무용반을 두고 연극인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1920년 6월 종합잡지인 『개벽』이 창간되자 학예부장이 되었다.

8) 현진건의 귀국은 군자금 모집과 상관없이 3.1운동 직후, 당시 서울 권변의 인기 기생 현계옥과 중국으로의 탈출한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이 사건은 가십거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끌자 금강종을 해결하는 연애담이 연재되기도 하였다.(백두산인, 「己未春 變裝出境 昔日은 花柳名聲」-六年間消息 업는玄桂玉來歷」(1), 『동아일보』, 1925. 11.1.)

덕경과 함께 상해로 갔다. 결혼 10여 년 동안 소박데기로만 살아온 형수 윤덕경을 형 정건과 함께 살게 해보려는 부친의 뜻에 따라 형수의 상해 가는 길에 현진건이 동반했던 것이다.⁹⁾ 형수 윤덕경은 현정건과 함께 상해 생활을 했다지만 몇 달 만에 귀국하고 만다. 그런데도 현진건은 상해에 남아 호강대학에 학적을 두고 공부할 수 있었다. 현진건도 이 무렵 대구의 부호이자 개화 지식인인 이길우의 딸 순득과 조혼한 상태였다.

귀국 후 현진건은 당숙 보운의 양자로 들어갔다. 현진건의 양자 입적은 문중의 대사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약속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진건의 상해 유학은 친가뿐만 아니라 양가 쪽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1919년 2월, 학업을 중단한 현진건의 돌연한 귀국은 당숙 보운의 병세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양부 현보운은 1875년생으로 1891년 관립일어학교에서 수학 후, 1895년 외국어학교 부교관으로서 관직을 시작하였다. 그 후 주로 대일 관계 외교관으로 봉직하다가 ‘정삼품 군부군무국 포공병과원 육군공병정위’로 관직을 마쳤다. 이 시기 대구에서 이상화와 함께 만세운동을 기획하다가 발각되어 서울로 피신한 백기만이 상복을 입은 현진건을 만났다는 진술이 있다. 현진건은 귀국 넉 달 뒤인 6월에 상주로서 양부 현보운의 장례를 치렀다.¹⁰⁾ 현진건이 대구를 떠나 본격적으로 양가에서 서울 생활을 하게 된 시기다.

1920년 11월에 현진건이 단편 「희생화」를 『백조』에 발표하였다. 같은

9) 「혈루에 젖은 40년간-고 윤덕경 여사 순종(殉終)기, 어둠과 슬픔의 눈 물 위에 신의 로 세워진 사랑의 탑」, 『신가정』, 1933.3./ 鄭五星, 「윤덕경 여사 순종 비화(悲話), 결연(結緣) 20년에 동거는 반세(半歲), 사 별(死別) 월여에 부군과 동혈(同穴)」, 『신여성』, 1933.3.<참조>

10) “내가 1919년에 서울에 갔을 때 병허가 상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백기만 『씨뿌리는 사람들』, 문화서점, 1959, p.17. 현보운의 사망일자와 묘소 등은 “高宗己未(1919) 6月 19日 終 墓 瑞草里壬坐”로 표기된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현인체 편, 『연주현씨족보』(연활자본), 대구, 1926. <참조>

달에 『조선일보』 기자가 되었다. 21살 때이다. 상해에서 귀국 후, 대구를 떠나 서울에 정착한 지 일 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일본과 중국을 이웃 나들이 하듯 넘나들었던 현진건이 당숙의 양자로서 서울에 정착한 이후는 심신이 몹시 지쳤을 시기이다. 양부의 상을 치른 후, 가계를 이어야 하는 책무를 짊어졌지만 실업자였다.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신학문을 열성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온전히 학업을 마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현진건의 첫 소설 「희생화」는 현희운의 도움으로 지상에 나왔다. 첫 소설의 지면을 얻기 위해 당숙 현희운에게 매달렸던 것은 자기 재능을 시험할 공간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살에 시작된 낯선 서울 생활, 일 년간 무료하게 보낸 서울 생활에서 일가친척 외에는 현진건의 재능을 알아보고 껴안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개벽사> 문예부장 현희운은 우리가 오늘의 현진건을 읽을 수 있게 한 훌륭한 안내자였던 셈이다.

현희운은 한국 신극을 개척한 현철의 본명이다. 친가로 치면 현진건의 증조부 경민의 세 아들 학규, 학표, 학두 중 막내 학두의 손자이다. 현학두는 중부 호민의 양자로 들어갔고 생부와 계부처럼 왜어 역관을 지냈다. 현희운의 만형 백운은 관립한성일어학교 출신으로 가업을 계승하였다.¹¹⁾ 현희운은 1891년생으로 역관의 길이 아닌 자유로운 학문의 세계를 주유한 인물이다. 동래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에 가옥이 있었고 동래는 일본과 외교 교섭을 주관하던 감리서가 있었기 때문에 역관이 상주하고 있었다. 현씨 일가의 일부가 이러한 일로 동래에 번갈아 거주하였다.¹²⁾

11) 현백운은 1891년 일어학교에 입학하여 1894년에 졸업했다. 1895년부터 한성사범 학교 부교관, 내부주사, 양지아문서기, 예식원주사, 예식원참리관, 내장원공원과장, 예식원예식관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904년 일본에 가서 궁내성제도와 사무를 시찰하고 돌아왔고, 1905년 훈5등과 태극장을 수여받았으며, 1909년에는 순종이 남순행(南巡幸)할 때 호종한 공로로 훈4등에 서훈되었다.

현진건 직계 6대조 태형 이래로 왜어 역관이 집중적으로 배출된 것은 6대조 태형과 사촌 태익의 순직과 관련이 깊다. 영조 때 일본통신사로도 일하던 중 대마도 앞바다에서 풍랑으로 배가 침몰하였다. 이 일로 통신사 일행 상당수가 목숨을 잃은 태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때 역관으로 도해하던 태형, 태익 두 사촌 형제도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 사실을 안타까이 여긴 영조가 태형, 태익 두 사람에게 직접 제문을 지어 보냈다. 조정에서 이들 중형제의 순직을 정려하였고 그 후손들을 우대하였다. 이 일로 후손들은 매년 남해에 제사를 지냈고, 일부 후손들은 밀양 하서면으로 이주하여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¹³⁾

현희운이 귀국 후, 종합잡지 『개벽』의 창간으로 학예부장이 됨으로써 현진건이라는 작가가 탄생할 수 있었다.¹⁴⁾ 9살 위의 ‘당숙인 현철 씨를

12) 현진건 가계 선대의 선영은 현 서울 서초동과 경기도 양주 일대에 있었지만 현희운의 부친 학두는 묘는 동래에 있다. 현희운의 형 백은의 묘는 서초리에 있다. 현인채 편, 『연주현씨족보』(연활자본), 대구, 1926. <참조>

13) “噫! 人君重人命, 其中三譯, 爲國效勞, 或至高品者, 而今聞玄泰翼·玄泰衡, 卽從兄第云, 尤爲慘惻”, 『영조실록』107, 영조 42년 8월 5일, <기사>

손숙경, 「조선후기 중인 역관의 동래 파견과 川寧 玄氏 현덕운 역관 家系의 분화, 그리고 중인 金範禹 후손들의 밀양 이주」, 『역사와 경계』 제100집, 2016, pp.1-37. <참고>

이상규, 「조선후기 천령현씨가(川寧玄氏家)의 역관활동(譯官活動)」, 『한일관계사연구』 제20집, 한일관계사연구학회, 2004, pp.197-239. <참고>

최차호, 「조선 후기 왜어 역관 현덕운 연구」, 『조선통신사연구』 제18집, 2014, pp. 97-146. <참고>

14) 『개벽』 1호부터 72호까지 문예 관련 기사가 788편이며 매호 평균하여 11편 가량의 문예 기사를 실었다. 『개벽』을 통해서 활동한 문인들로 김석송, 김소일, 김억, 염상섭, 현철, 황석우, 김기진, 나도향, 박영희, 이기영, 이상화, 이익상, 조명희, 주요섭, 현진건 등이 근대 문학 발전에 기여한 주류 문인들이다. 20년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발행된 개벽은 한국 근대 문학을 만들어 내는 데도 큰 역할을 행한 것이다. 최수일, 『1920년대 문학과 <개벽>의 위상』,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pp.71-73. <참고>

성도 내며 빌기도 하며 제발 그것을 내어달라고 조르고 볍을' 수 있는 사이였기 때문이다.¹⁵⁾ 서울을 거점으로 동래에서 성장하였고 장기간 해외 유학을 한 현희운은 현진건이 지척에서 자주 볼 기회가 드물었다. 하지만 길흥사 등으로 친지 집을 오갈 때마다 며칠씩 머물며 숙질간의 정리(情理)를 다졌으리라 생각된다. 현진건 단편 「할머니의 죽음」에서 서울과 부산, 밀양 등지에 있는 형제와 친지들의 모이는 장면은 이러한 예가 될 듯하다. 더욱이 이들의 거주 공간은 근대 교통망인 철도가 있었고 부유하였고 개화관료로서 국제적 안목을 갖추었던 가계의 구성원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현진건이 당숙에게 '조르고 볍을' 수 있다는 것은 현철과 현진건의 남다른 교감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로부터 10년 후, 『개벽』 10주년에 작가로서 명성을 얻은 현진건의 소회는 남다른 것이다.

내가 처음에 同誌에 寄稿하기는 「犧牲花」란 短篇이었다. 명색 創作으로 活字가 되어 보기는 이것이 처음이다. 타는 듯한 意氣와 조비비는 듯한 恐懼心으로 나는 밤잠도 못 자고 그 發表 結果를 기다렸든 것이다. 내가 쓴 글자가 의외하게 뚜렷하게 同誌 上에 나타난 것을 볼 때에 나는 까닭 모를 눈물까지 흘렸든 것이다.

그 후 나의 重要한 創作은 대개 同誌를 通하여 세상에 얼굴을 내어노케 되었다.

오늘날 죽으만한 文名이라도 어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同誌를 母盤으로 생겨난 것이다.¹⁶⁾

15) 양진오는 현희운이 당숙이라는 사실을 '운이 좋을 뿐이 아니라 보통 행운이 아니다'라고 표현한다. 적절한 평가다. 오늘날이면 지탄받을 일이지만 이렇게 끌어주고 스스로 일을 만드는 데서 작가로서 거듭난 것이다. 양진오, 『조선훈의 발견과 민족적 상상』,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총서, 2008, p.59.

16) 현진건, 「〈開闢〉時代를 追憶하며, 當時에 執筆하든 諸氏의 紀念執筆」, 『별건곤』 30, 1930.7.1.

「犧牲花」가 發表되기는 同誌의 創刊 當年인 듯 하니 그러면 내가 文壇에 第一步를 들어민지도 어느덧 10年이 지낸 모양이다. 이 10年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如何一少年 忽忽已三十, 어릴 때 次氷室文集에서 읽은 이런 詩가 문득 생각나며 反省과 感慨를 禁할 수 없다.¹⁷⁾

어느덧 성공한 작가로서 『개벽』지를 대하는 현진건의 감회가 새로울 수 밖에 없다. 그 길을 현희운이 열어주었고 첫 작품 「희생화」에 대한 황석우의 혹평마저 감싸주었기 때문이다.¹⁸⁾¹⁹⁾ 현진건은 두 달 뒤인 이듬해 1월에 「빈처」, 11월에 「술 권하는 사회」를 『개벽』지에 발표함으로써 일신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현진건과 『개벽』, 현진건과 현희운은 근대적 지식인이 극히 희박한 시대에 그다지 불편부당하지 않는 지연적·혈연적 유대를 과시한 셈이다.

『개벽』에 「희생화」가 발표된 시기에 현진건은 조선일보사 기자로 입사한다. 현진건의 조선일보 취업은 현희운 또는 현보운의 도움으로 알려졌다. 만, 중편 「지새는 안개」에서는 ‘삼촌’이 주선하고 있다.²⁰⁾ 『개벽』 11월 1

17) 현진건, 「첫 기고의 회고」, 『開闢』時代를 追憶하며, 當時에 執筆하든 諸氏의 紀念 執筆, 『별건곤』30, 1930.7.1

18) 황석우, 「犧牲花와 新詩를 읽고」, 『개벽』6, 1920.12.1. p.89. <참고>

19) 황석우의 「희생화」에 대한 혹평에 대한 현희운의 비평으로 황석우는 현희운이 조카를 감싸는 비평을 했다고 불만을 드러내었다. 현희운의 「비평을 알고 비평을 하라」는 「희생화」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황석우와의 논쟁은 누가 보아도 조카에 대한 비호로 여겨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東京에 잇는 黃錫禹君에게 一言을 加하노니 本誌 12月號에 君의 「犧牲花와 新詩를 읽고」라는 題目下에 付言으로 그 罵는 바와 行動이 微蛻君과 갓기로 따로 答辯은 아니하여도 알아들을만 하니까 그만두고” 현철(본명 현희운), 「批評을 알고 批評을 하라, 時事新聞의 微蛻 君과 **잇는 黃君에게 答」, 『개벽』6, 1920.12.1. p.103.

20) 현진건의 양부 현보운은 1919년 6월 19일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현보운의 주선이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일에 게재된 「희생화」는 경력이 일천한 현진건에게는 좋은 이력이 되었을 것이다. 「지새는 안개」에서 현진건의 취업 과정을 비교적 길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삼촌이라면 현철운, 현영운, 양운, 봉운 네 사람 가운데 한 명일 것이다. 막내 숙부 봉운은 조졸(1887-1895)하였고 철운은 1900년을 전후하여 대구에 정착하였다. 양운(1871년생)은 음직으로 출사하여 순종 원년(1907)에 종6품 기술직인 태복사 기사에 그쳤고 후일 친족이 먼저 이주한 밀양에 정착하였다. 그간 현진건 연구에서 현영운은 친일 행적 때문에 친족이라는 사실만 언급할 뿐 둘 사이의 관련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새는 안개」에 설정된 삼촌은 허구화된 삼촌이다. 여기서 현진건으로 볼 수 있는 창섭도 설정된 인물이다. 「지새는 안개」는 주인공 창섭이 시골에 있는 구식 아내가 보기 싫어서 취업을 빙자하여 서울 삼촌 집에 머물고 있을 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지새는 안개」의 절반 이상은 연애 문제와 씨름하는 창섭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삼촌 집에서 창섭은 사촌 여동생 영숙의 친구 정애에 빠져 교제할 방법에 대해 골몰하기도 한다. 정애뿐만 아니라 화라라는 영숙의 친구도 창섭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일본 유학을 중도에 그친 자격지심과 기혼자라는 결점이 자신을 괴롭힌다. 창섭은 영숙과 교제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로 용기를 얻는다. 하지만 영숙의 다른 친구 화라의 개입으로, 남산에서 정애를 만나지 못한다. 이러한 무위 속에서 정애와의 교제에 골몰하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삼촌은 창섭의 무기력함을 걱정해선지 취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취업 권고 장면에서 삼촌의 언행과 창섭이 알고 있는 삼촌의 내력을 살펴보면 현영운의 행적과 부합되는 부분이 많다.

아들이 업는 그는 昌變을 매우 사랑하였다. 性質이 溫恭하고 伶俐한 昌

變이라 勿論 그의 눈에 거실리는 일도 저절로 안했지만

「이제 이것 너 두고 써라」 하면서 잇다금 돈을 2圓씩 만흔 때는 拾圓씩 昌變을 주기도 하였다.

昌變이가 막 저녁밥을 다 먹은 때이었다.

삼촌은 승냥으로 양치를 한 두번 하고 나더니 昌變을 보며

「너 요사이 무엇을 하니」 라고 닳자곳자로 못는다.

「뭐... 하는 것 있습니까」 라고 昌變은 고개를 숙여 장판만 내려다보며 대답하였다. 이것은 昌 變의 어른을 피시키고 이악이 할 때의 버릇이었다.

「그래 놀기가 심심치 안흐냐」

「네...」 昌變은 模糊하게 어물어물하며 겸연쩍게 해죽 웃었다.

「그래 노는 맛이 어떠탄 말이야 설탕맛이나 소태맛이나. 응」 하고 삼촌은 껄껄 웃는다. 그는 제 子姪을 데불고도 이런 웃으개를 잘 부티었다. 昌變은 무예라고 말을 해야 올홀지 몰라 默默地 안저 잊었다.

「웨 아모 말이 업느냐 응. 놀기가 설탕 맛도 아니고 소태 맛도 아니고 심심하게 물맛이나」 하고 늙은이는 또 한번 크게 웃었다. 그리고 젊은이가 또 멍웃멍웃해 하는 것을 보고

「너 新聞記者노릇 좀 해 볼터이나」 하고 인제야 정작 제 물을 말을 물었다.

「新聞記者요?」 昌變은 놀래인 듯이 재우쳤다.²¹⁾

위의 창섭과 삼촌의 대화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소설 속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 양가로 입적되었지만, 친가로부터는 여전히 삼촌이고 낯선 서울에서 직업도 마음 붙일 곳도 없을 때 삼촌의 존재는 클 수밖에 없다. 이 시대는 씨족 간의 결속이 어느 때보다 강할 때였다. 제 자질(子姪)을 데리고 ‘우스개를 잘 붙이’는 삼촌은 이렇게 조카의 심증을 떠보면서 ‘신문 기자노릇’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에 놀란 창섭은 자신의 꿈이 문사와

21) 현진건, 「지세는 안개」, 『개벽』38, 1923, 8.1, pp.138-139.

기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작중에 고백한다.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삼촌은 현영운일 터이다. 현영운의 첫 관직이 박문국 주사로, 박문국은 당시 『한성순보』를 발행하던 기관이었다.

현영운은 1883년에 최초의 관비유학생으로서 일본 경응의숙에서 수학, 1885년 8월 15일 졸업 직후인 1885년 9월 1일에 첫 관직으로 박문국 주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신문을 발행하는 근대 기관인 박문국 주사에 임명된 이래로 능통한 일본어 실력을 기반으로 출세가도를 달려왔다. 또 『시사총보』 발간에 관여할 정도로 언론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²²⁾ 군직으로는 참장, 행정직으로는 농상공부서리대신에까지 올랐지만 1907년 40살 되던 해에 고종의 퇴임과 함께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로 친일행위와 조금씩 멀어져갔다.

官立日語學校의 最初의 出身으로 日本公使館書記로 지내고 御殿譯官도 지내인 永淑의 父親은 이미 예순이 다된 老人이었다. 마흔이 넘어서 안해를 일흔 그는 저보담 스무살이나 年下인 處女에게 장가를 들었었다. 前室에는 所生이 업고 永淑은 後妻의 몸에서 난 외동딸이었다.

그도 한참 서슬이 푸를 때엔 쫓을 셋씩 넷씩 두고 굉장하게 거들어 거렸 섯다. 그 허여멀금한 얼굴빛과 老人답지 않게 새까만 눈썹에 시방도 오히려 젊은 날의 風度를 차질 수 있다.²³⁾

22) 현영운의 신문과 관련된 일은 박문국 주사로 임명(1885~1889)되면서다. 『承政院日記』 高宗 22年 10月 16日(1885년 10월 16일(음)/1884년 갑신정변으로 『한성순보』가 폐간된 2년 후 1886년에 박문국에서 신문 복간을 결정하였는데 제명은 『한성주보』다. 동년 12월 20일부터 주사가 한 명씩 교대로 임직하여 국왕 옆에서 전교를 기록해 신문에 게재하도록 했는데 현영운도 이 시기 고종과 빈번히 만날 수 있었다. 현영운은 1894년 황국협회 중심으로 창립된 『시사총보』를 발행에 관여하였다. 『시사총보』는 『황성신문』에 이어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했고 정치적으로는 경쟁관계에 있었다.

23) 「지새는 안개」, 앞 책, p.137.

여기의 관립일어학교는 역관 과거가 없어진 후부터 현진건 일가의 상당수가 다녔던 관립외국어학교다. 일본공사관서기도 현영운이 거쳤던 관직이다. 현영운은 1868년생으로 1907년 40세에 배정자와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감했다. 위에서 ‘잃은’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 1907년 현영운이 실각하고 재기가 어려워 보이자 배정자는 이혼을 요구하고 곧 박 모라는 남자와 결혼했

다. 현영운은 이혼 후 새장가를 김해김씨에게 들었다. 작중 사촌 여동생 영숙도 새 부인으로부터 얻었다는 것은 허구다. 당시 현영운은 위의 기사처럼 첩치가로 여러 차례 비난을 받았다.²⁴⁾

1886년에 관직에 든 후, 20년 만에 농상공부서리대신에게까지 오른 현영운에 대한 당대 지성의 평가는 혹독하다. 후일 친일파로 변신했지만, 한때는 기개가 충만하고 정의로웠던 윤치호의 청년시절 일기에는 현영운을 ‘악당’으로 묘사되고 있다.²⁵⁾ 이 ‘악당’이 후일 윤치호의 사촌동생 윤치오의 부인이 되는 현송자의 아버지 현영운이다. 현송자는 현진건보다 한 살 위이다. 소설에서와 달리 한 살 위의 오빠도 있다. 작중의 삼촌은 털털한 데

현씨정 태보소장 현영운씨가 그 부인 김씨와 동거하야 부귀를 동거하더니 근일에 현씨가 무단히 퇴직을 박탈하며 일용 미식을 얻고 퇴직을 내기 쫓으니 퇴직의 타락함이 업서 길에서 방황한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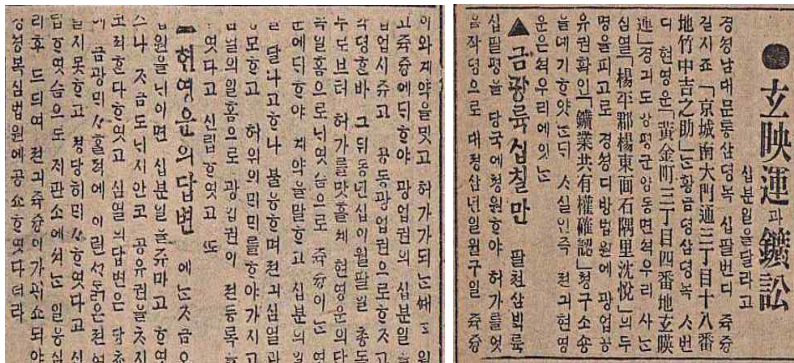
현영운의 첩치가와 배정자와 헤어진 사실을 알리는 1907년 11월 2일자 『대한매일신보』 기사.(신문기사는 배정자를 피해자로 하여 현영운을 나쁘게 묘사함)

24) 「현영운의 첩」, 『대한매일신보』, 1908.1.1.6

25) “훌륭한 조선인과 나쁜 조선인을 가르는 일본인의 기준: 누가 일본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일본인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복종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부도덕하고 극악한 인물일지라도 보호하고 승진시켜왔다. 그 예가 바로 권중덕(權鍾德), 현영운(玄暎運) 같은 사람이다.” 윤치호, 『윤치호영문일기(번역)』, 1904.4.26.

가 있고 허풍스럽지만 사내답고 자상한 부분이 있는 인격으로 묘사하고 있다. 실제 현영운은 구한말의 친일 행적과 부도덕한 행적 등이 있었지만 친지들에겐 사람이 시원시원하고 정분 또한 깊었던 것 같다. 여기까지로 현영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자.

그는 日語로 立身을 하얏스되 어쩐지 일본사람을 실행하얏다. 그 탓으로 세상이 변하자 제 手下에 돌든 사람들은 道長官이다 參與官이다 무엇이다 딱딱 하야 갓건만 그 호올로 찌글어지고 말엿다. 묵은 政治家의 氣風으로 金錢을 대수롭게 알지 안흔 그는 財産이- 뿌리는 김지 안하도 끌어만 모앗스면 꽤 만핍을 財産이 온곳간곳 모르게 되엿다. <중략>이러케 窮해 들어가면서도 몇달만 지내면 東洋拓殖會社에게 어굴하게 빼앗긴 東大門 밧 땅을 찾는다는등 日本서 機械를 注文해 내어와 密陽근처의 개포에 논을 풀면 여러 數千石秋收를 할 수 잇다는등 어대 큰 金鑛을 經營한다는등 왕창 뛰게 큰 소리만 하면서 밤낮으로 밧븐듯이 돌아 다니엿다. 기실 가끔 가다가 큰 돈이 생기기도 하얏다. 그러나 그 돈은 몇칠 안되어 또 감곳 업시 살아젓섯다. 26)



(현영운의 광산 관련 소송 기사. 『매일신보』, 1916.5.5.일자 기사)

26) 「지세는 안개」, 앞 책, p.137.

현영운이 퇴임한 이후 별인 사업은 줄줄이 망해서 현진건이 서울 살림을 할 무렵에는 지극히 곤궁해졌다. ‘동척에 빼앗긴 땅을 찾는다던가’라던가 ‘개간과 금광사업’에 손을 댄 일 등이 모두 실패한 사실도 현진건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²⁷⁾ 이 시기에 들어 거듭된 사업 실패와 이용가치가 떨어진 현영운에 대한 일제의 냉담 등으로 현영운이 점차 일본에 대해 반감을 지녔을 것이다.



현진건의 사촌 누이 현송자의 결혼식 기사. 1919년 5월 14일 발행 『매일신보』

현진건이 서울 생활을 시작한 해인 1919년 5월에 사촌 누이 송자가 무려 서른 살 연상의 윤치오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다. 세평은 현영운의 ‘찌그러진’ 살림 때문이기도 했다. 오늘날 윤보선 전 대통령의 백부로도 잘 알려진 윤치오는 현영운보다 한 살 아래였고 경응의숙 후배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현영운의 형편이 나아지고 옛 관료들과 만나는 등의 출입도 빈번할 무렵이다. 「지새는 안개」에서 삼촌의 배려로 취직된 창섭은 대단히 만족해한다. 물론 취업 후, <반도일보사>의 ‘곰팡내’, ‘음탕한내’가 구역이

27) 「현영운과 鑛訟」, 『매일신보』, 1916.5.5.

들도록 하였지만, 직업을 얻고 선불로 받은 급여에 놀라는 모습은 사실인 듯하다.

生活費! 삼촌집에서 밥은 그저 어더먹는 터이니 내 生活費야 拾圓만 잇스면 足하리라 하얏다. 할수만 잇스면 한푼도 아니 맞고라도 이런 偉大한 事業에 獻身의 努力을 하고 십혔다. 이런 생각을 하며 미처 대답을 하기 전에 柳氏는 벌써 그 눈치를 알아채엿든지 말을 니어

「얼마동안만 견디이면 勿論 報酬도 相當해지겠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가 두러워 하는 듯이 텅비인 그 근처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추어 「위선은 極少限度로 한 六拾圓갓다 쓰시게 하십시요」

六拾圓뎌이나! 昌變은 제 귀를 미들수 업섯다. 한동안은 입을 벌일 수도 업섯다. 昌變의 조하하는 꼴을 번연히 알아 보앗건만 柳氏는 더욱 報酬가 적음을 愧歎하는 듯이

「新聞社가 여간 가난해야지요. 어땟습니까 그것이면 最少限度의 生活費나 되겠습니까」 라고 앓가 말을 뒤풀이 한다. 昌變은 더 할 수 업시 感激 하얏다. 그래 떨리는 소리로

「그것은 넘우 만습니다」²⁸⁾

七年前 十一月 末日

내가 첫 수입을 바다들 때 말임닛가. 생각이 잘 안나는데요. 칠년 전 인가 육년 전인가 어쨌든 내가 스물살 나든 때 겨울에 朝鮮日報에 기자로 드러간 것이 생각납니다. 그것이 나의 첫 취직인 동시에 그때 그 수입이 첫 수입입니다. 卽 십일월 말일인가 봄니다. 封筒을 한 장 내 주기에 월급인가 보다 하고 도라서 뜨더 보닛가 십원자리 여섯장이 드러습니다. 초급하고는 꽤 만엇습니다. 엇지도 깃브든지요. 그래 그 돈을 가지고 나와 이십원인가 열만가 시골집에 보내고 책 한 십원어치 사고 그리고 깃븐 김에

28) 「지세는 안개」, 앞 책, p.144.

동무들과 가티 한잔 **특특히 한듯 합니다**. 그런데 뭐-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요. 옛재든 기자생활이란 수입으로는 보잘 것이 업서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청이나 은행회사 방면에 육칠년 다녔으면 그러치는 안케지오...하하...²⁹⁾

취업으로 만족했던 소감은 소설뿐 아니라 설문에 대한 답변인 「첫 收入
 맞든 때 이야이」로도 그날의 감회를 상세하게 기억해내고 있다. 기자로 취
 업함으로써 출발은 생활의 안정을 가져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영운이 승승장구하던 시절에는 환로를 열지 못한 부형에게 관직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현영운의 대구 정착도 현영운과 무관하지 않다. 현영운은 현
 진건 형제를 뒷바라지해준 흔적은 또 있다. 현정건이 서울 해동학교 영어
 과를 졸업 기사에도 현영운이 등장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지새
 는 안개」의 삼촌은 현영운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922년 현진건은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삼중 자형이 되는 최남선이 발행하는 『동명』으로 옮겼다. 이때의 현진건은 기자로, 작가로도 어느 정도 명성을 쌓을 때다. 최남선은 현진건의 재종숙으로 한어 역관으로 출사한 현정운의 여섯 번째 사위다. 최남선의 부친 최헌규는 고종 16년에 음양과 지리전공으로 출사했

속아서 일정한 대일의 줄
●히로코로 줄업식 스티히등산
업식 줄을 기항하였던 호환
에서 군악을 치며 영어과
와 영어과 졸업생 구입
게 졸업증서와 상품
히 준후에는 찬성장 리지
국씨가 리원현영은의 리
졸업자가 이때로 원면
영어과 졸업식중에 회
현전인 제비와 영어과
업식 필졸업자가 답
●백식을 기항하였다라

해동학교 1회 졸업에 관한 기사, 내빈으로 현영운이 참석했음을 알리고 있다. 조카 현정건의 졸업식에 예빈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다.

29) 「첫 收入받은 때 이약이」, 『별건곤 제4호』, 1927.2.1.

다. 최영의 직계 후예로 알려진 동주[철원] 최씨가 언제부터 중인 가계로 자리 잡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 시기 역관 가계인 현진건 가계와 비슷한 신분으로서 혼맥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진건은 최남선과 가장 오랜 기간 함께 했다. 『동명』에서 『시대일보』, 『시대일보』에서 『동아일보』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척 가운데 가장 오래, 가장 가까워서 일했고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았다.³⁰⁾

최남선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썼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일로 출판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2년 8개월을 옥살이를 했다. 훗날 친일 행위로 명성을 크게 잃었지만,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최남선의 우국 사상과 그 실천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만기 출옥 직후인 1922년 9월, 최남선은 진학문과 함께 『동명』을 발행하였다.³¹⁾ 현진건이 재직할 당시 『조선일보』가 맞지 않았던 모양이다. 「지새는 안개」에서의 신문사 분위기도 스스로 생각한 언론사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³²⁾ 현진건은 잡지 『동명』이 『시대일보』(1923.7.10.)로 개칭하여 일간신문으로 바꾸었을 때도 기자로 활동했다. 현진건은 편집 기자로서 역사학자, 민속학자로서 고민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았고 최남선이 집필한 글을 접할 수 있었다. 현진건의 『흑치상지』, 『무영탑』, 『선화공주』 등의 장편 역사소설, 단군유적 순례, 고도기행, 국토순례 등은 최남선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0) 양진오, 『조선혼의 발전과 민족의 상상』,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총서, 2008, pp.144-145.

31) 최남선은 일찍이 출판문화에 관심을 가졌다. 1908년 일본 유학을 중도에 그치고 귀국할 때 최남선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받아 일본에서 인쇄 기구 일체를 구입해서 신문관을 설립하였다. 이 신문관은 새로운 국민인 청년층에게 정신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설립한 출판사였다. <신문관>을 대표하는 활동이 1908년 11월 창간된 잡지 『소년』이었다.

32) 조선일보에서의 현진건의 모습은 양진오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양진오, 앞 책, p.138.<참고>

2. 자기 연민으로부터 회상되는 가족사

「희생화」는 소년의 눈으로 목격한 자유연애담이다. 이 소설의 결말은 구도덕에 대한 저항으로 도피와 죽음으로 매듭짓는다. 완고한 구도덕이 희생자를 만든다. 인습이 자유연애를 파탄시킨 것이다. 조혼 반대와 자유연애에 심취된 신청년들의 감정을 미숙성은 현길언의 지적처럼 ‘자아 인식의 한 징후’로서 사랑을 전면에 부각하였기 때문이다.³³⁾ 첫 발표가 지면으로 나오자 현진건이 그렇게 감격했던 까닭은 작품이 활자화되어 나왔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공들여 무언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터이다. 작가의 말처럼 구도덕에 희생되는 여성을 그리려고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 구도덕의 희생자로 K라는 대구 청년이 또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大邱 사람이다. 그의 父母는 아주도 大邱에서 산다. 서울 잇는 五寸堂叔 집에 그는 留宿하고 있다. 그는 서울 온지가 벌써 5,6년이 지내었슴으로 사투리는 거의 안 쓰게 되었스나 때때로 우리를 웃키라고 야릇한 말을 하엿다.³⁴⁾

부모가 대구에 살고 있고 자신은 당숙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현진건 자신을 내비치는 듯하다. 이렇게 설정한 내포 작가는 소년[국주]으로서 K의 행동을 중개하는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국주를 통해 은폐하면서 국주의 시선에서 제한적인 사실만 이야기한다. 국주의 누이는 대구 사람 K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한다. 그러나 K는 할아버지로부터 구식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다. K의 누이에 대한 사랑은 K의 가족,

33) 현길언, 『현진건 소설 연구』, 이우출판사, 1989, p.47.

34) 「희생화」, 『개벽』5, 1920, 11. p.138-139.

특히 K의 할아버지로부터 노여움을 싸고 있다. K는 할아버지의 다른 사람과의 결혼 강요에 대한 저항으로 먼 곳으로 달아나고 만다.³⁵⁾ 소설 말미에 대규 사람 K가 ‘영영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후일담은 K와 그 가족 간에 회복할 수 없는 대단한 불화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디론가 떠나버린 K는 구식 결혼을 하게 된 현진건의 혼전 자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장면을 보면 현진건이 아닌 현정건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그런데 五寸堂叔 內外분은 아마 이 눈치를 아시는 것 가타요... 네? 아마 그런 것 가타요, 그래서 집에 무슨 通寄가 잇섯는지 한아버지께서 日間 올라오신대요.」

「올라오시면 죄다 엇줍겟단 말씀이구려.」

「글세요, 그런데... 우리 한아버지는 참 호랑이 가튼 어른이라... 頑固 頑固 참 頑固신데... 나도 어찌 할 줄을 모르겠서요,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안해요.」하고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눈썹을 찡기더니 또 말을 이어

「오늘 또 아버지께서 下書하섯는데 이번 蔚山 金承旨 집에서 너를 선 보러 간다니 行動을 端正이 하여라 하는 뜻입디다. 참 氣 막힐 일이야요.」하고 한숨을 내쉰다.

「父母님께 하로바빠 이 事情을 엇줍지 안하면 큰일나겟습니다 그려.」 누님의 안타가운 소리가 들린다.

「如何한 꾸중을 보시더라도 장가를 못가겟다 할 터이야요! 죽음도 걱정 마셔요.」 그는 決心한 듯이 고개를 들며 斷然이 말하였다.

「아니야요, 明日은 한아버지께서 꼭 다리고 가실 모양이야요, 至今 곳 멀리멀리 다라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나 몇마디 할 양으로 왔서요.」

35) 현정건은 윤덕경과 혼인한 지 3일 만에 집을 나가서 중국으로 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윤덕경 사후 『신가정』(1933.3)에 게재된 「血淚에 젖은 四十年間一故 尹德卿女史 殉從記」(p.141)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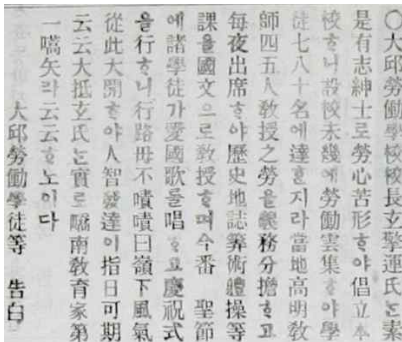
누님은 自己의 귀를 疑心하는 듯이

「네? 멀리멀리 가세요?! 父母도 버리시고 兄弟도 버리시고 멀리 가세요?! 제 身世는 벌써 불상하게 되었습니다. 불상한 저 때문에 前程이 九萬里 가튼 당신을 또 不幸하게 만들 것이야 무엇있습니까. 질랑 永永이 이즈시고 父母님 말씀으로 장가드세요. 장가드시는 이하고나 百年이 다 진토록 情다운 짝이 되어주세요. 아들 나코 딸 나코... 저의 모든 것을 바쳐도 당신이 幸福되신다면 그만이 아니야요? 곳 당신의 깃뼘이 제 깃뼘이 아니야요? 당신의 幸福이 제 幸福이 아니야요? 한숨쉬고 눈물 흘리면 도 당신의 幸福의 그늘에서 웃어볼가 합니다.」³⁶⁾

완고한 할아버지와 K 사이에 당숙[오촌 아저씨]은 할아버지의 입장에 있다. 당숙이 K의 연애사실을 알리고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서울로 오게끔 했다. 실제 현정건은 현영운의 집에서 해동학교를 다녔다. 이에 K의 아버지는 편지를 통해 아들 K에게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미리 알리고 있다. 당숙과 할아버지 사이에서 자신의 아들 결혼에 대해 수동적인 모습이다. 아버지는 ‘단정히 하라고’ 최소한으로 주의한다. K의 혼인을 주도하는 것은 완고한 할아버지다. 이 점은 현진건이 목격한 현실일 수 있다. 10년 전이라면 1910년 전후일 터다. 이 무렵 현진건의 아버지 현영운은 대구에서 신교육을 이끌던 노동야학교 교장이었다. 개화 문물을 일찍 받아들인 서울 출신 옛 중견 관료로서 대구에서는 신교육을 이끄는 계몽선각자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신사상에 기울어진 아들 경운 대신 무과 출신으로 성격 완팍한 현학표가 손자 현정건의 혼인을 주도했을 수도 있다.

위의 자료는 현영운이 대구노동학교를 설립하고 학도를 헌신적으로 가르쳤다는 사실을 신문에 광고한 부분이다. 과거처럼 선정미를 세우는 대신

36) 「희생화」, 앞 책, p.137.



대구노동야학교 학생들이 현경운의 공적을 칭송하는 광고(《대한매일신보》, 1908. 9.22.)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고를 위로하는 광고도 이 시기에 한 풍경이었다. 위의 ‘울산 일판에 유명한 집안’, ‘재산도 있고 양반도 좋은’ ‘울산의 김승지’를 ‘양산의 윤승지’로 바꾸어 보면 「희생화」는 누구를 이야기하려는 지 짐작이 간다.³⁷⁾ 현정건의 처가가 실제 양산의 윤승지 덕이기 때문이다. 윤승지는 곧

윤필은이다. 고종 23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동래부윤, 승정원 승지를 역임했다. 윤필은 일가는 양산을 대표하는 사족일 뿐 아니라 영남의 거부로 알려져 있다. 윤필은의 동생 윤상은은 장조카 윤현태와 더불어 경주 최부자, 백산 안회제 등과 함께 민족 자본을 이끌던 인물이었다.³⁸⁾

현정건은 결혼 직후 중국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망명하였다. 상해에서의 활동을 기록한 일본 첩보 문서에 현정건이 처음 나온 시기가 1911년이다. 이 망명이 순수한 독립운동 때문이었는지 결혼으로 인한 가정불화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 현정건은 결혼 후, 10여 년 만에 상해에서 재회한 부인을 국내로 돌려보냈고³⁹⁾ 3.1운동 전후 귀국하였다. 그러나 임정

37) 현진건, 「희생화」, 앞 책, p.140.

38) 김형목, 「우산 윤현진 일가(一家)의 민족운동」, 『민족사상』13(3), 2019, pp.93-130.

39) 현정건의 출옥 후 형독으로 인한 사망과 부인 윤덕경의 뒤이은 죽음은 독립운동가 가문의 비극으로 상당한 관심과 연민을 자아내었다. 윤덕경의 순사를 기리는 글들이 잇달아 지면에 올려졌는데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두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승화하는 방향으로 기술하고 있다. “현씨의 상해 생활은 언제 어떠한 폭풍우가 내릴지

수립 전까지 독립운동과 관련된 뚜렷한 활동을 했다는 흔적도 없이 같은 해 7월경 기생 현계옥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현계옥은 현정건과 같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에서 큰 인기를 끌 무렵 일시 귀국한 현정건을 만나 사귀다가 서울 권번으로 옮겨졌을 때 재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연애는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다. 현계옥과의 도피는 독립운동가 현정건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3.1운동 직후 성립된 상해임시정부에서 친구이자 동지로, 사적으로는 손위 처남인 윤현진 앞에 면목이 서지 못했으리라 짐작된다. 앞의 윤승지로 알려진 윤필은의 아들 윤현진은 1905년, 13살 나이에 을사늑약에 분개해 상해로 망명할 만큼 강단과 민족의식이 강한 독립운동가이다. 1515년 동경유학생 잡지 『학지광』에 「學之光 第五號에 寄함」이라는 격려의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1919년 9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국되자 초대 재무차장이 되었다. 윤현진은 양산에 있는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한 30만 원을 백산 상회를 통해 임시정부로 보내게 하였다. 당시 재정난에 휘청거리던 상해임시정부가 윤현진의 거금이 들어오자 마침내 활력을 되찾았다. 윤현진이 29세에 상해에서 급서하였다. 임시정부는 그의 공적을 국장으로 예우했다.

모르는 생활이었다. 미어질 듯한 긴장과 추측하기 어려운 변화 속에서 지나는 상해의 청년지사 현씨에게는 윤씨의 정성스러운 내조도 때로는 그의 행동을 견제하는 것 같아서 현씨는 마침내 윤씨를 3개월 만에 귀국케 하였다.”<고 윤덕경 여사 순종(殉)終>기, 어둠과 슬픔의 눈물 위에 신의로 세워진 사랑의 탑, 『신가정』 3, 1933.3.>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그리운 부군을 만나기 위한 단념(丹念)으로 그의 시숙 되는 현 동아일보사 사회부장 빙허 현진건 씨와 동반하여 거친 황해를 건너 한번 상해에까지 간 일이 있었으나 주위의 사정이 허락지 않는 바이므로 약 1개월 동안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뿐 쓸쓸한 발걸음을 다시 이 땅으로 돌이키었던 것이다.”<鄭五星, 「윤덕경 여사 순종 비화(悲話), 결연(結緣) 20년에 동거는 반세(半歲), 사별(死別) 월여에 부군과 동혈(同穴)」, 『신여성』, 1933.3.>

현계옥은 사상기생으로 독립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기록으로 남은 것은 별로 없다. 다만 장안의 인기 기생이었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이야기가 다수 유포되었다.⁴⁰⁾ 「희생화」는 1919년 2월, 현진건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형의 불명예스러운 도피를 변명하기 위한 작품이 아닐까 하는 점도 있다.

Ⅲ. 빈곤의 탐색으로 그린 조선의 얼굴

현진건 소설에서의 빈곤 문제는 등장인물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적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된다. 작가적 논평보다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현실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진건 소설에서의 빈곤은 작가적 체험적 요소보다 외부 시선으로 관찰된 사실에 가까운 것이다. 「운수좋은 날」, 「고향」, 「사립정신병원장」, 「신문지와 철장」 등에서 관찰된 빈곤은 동시대의 일상 속에서 관찰된 개인의 모습으로 일반화 할 수 있다. 이는 현진건이 일본과 중국을 경험한 후, 서울에서의 작가와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받아들인 빈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현진건의 수필 「여름과 맨발」에서도 빈곤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엿보인다. 이 수필은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으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담아내고 있지만 성년이 된 시점에서 해석된 사실은 빈곤과 관련이 깊다. 이 수필은 앞산의 고목 등걸에 기대어 앉은 ‘내[현진건]’ 앞에서 두세 처녀가 나물 캐던 모습을 소개한다. 이들의 움직임이 동화처럼 느껴졌던 어린 시절과 달리 10

40) 草土, 「現代女流思想家들(3), 붉은 戀愛의 主人公들」, 『삼천리』17, 삼천리사, 1931.7.1., p.13. / 백두산인, 「己未春 變裝出境 昔日은 花柳名聲」-六年間消息 업는玄桂玉來歷」(1), 『동아일보』, 1925.11.1.

여 년 지난 성인이 돼서 기억을 재구성하면서 사뭇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 시절에는 처녀들이 풀숲에서 나물을 캐면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게 신비스럽게 보였다. 마치 어린 새가 나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나물을 찾아 자리를 옮기는 처녀들의 가벼운 움직임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것이다. 이 움직임에서 어린 현진건이 발견한 것은 처녀들의 눈 부시게 하얀 발이다. 앞산의 맑은 냇물에 씻은 듯 눈처럼 하얀 발이 풀숲에서 나타났다가 숨었다 한다. 이것은 마치 물 속 은어 같았다. 소년 현진건은 여름날 아름다운 정경을 본 것이다.

너름가티 자연(自然)과 친하기 쉬운 시절은 업스리라. 풀도 한껏 풀으고 나무도 한껏 육어진데 풀다님 맨발로써 실음업시 소요(逍遙)하는 맛이란 속된 말로는 형용하기도 어려웁다.

우연히 써노흔 풀다님 맨발이란 말에 귀여운 어릴 때의 기억이 문득 난다. 그때내가 열두 살이든가 열세살이든가 우리 고장에서 한 십리 되는 「압산」이란데 놀러를 갔었다. 해는 거운거운 서산으로 넘어가아 장엄(莊嚴)하고도 힘업는 광선이 붉으스름하게 나무가지에 걸렸을 제 귀여운 처녀들이든가 셋이든가 고목(古木)나무 들걸에 안진 내 압 멀지 안케 나물을 캐고 잇었다. 새색기가 날기를 배우는 것처럼 잠간 걸었다 주저안고 주저안고 한다. 그때에 이상하게도 그 처녀들의 맨발이 나의 눈을 끌었다. 유순하고도 폭신평신했던 파란 풀 속으로 그 발들은 잠으러갔다 떠올랐다. 암아도 바루 그 산 발치를 씻어 내려가는 시네에 씻고 또 씻었든지 그 발의 희기란 거의 눈과 갓지 안흔가. 밋글어지는 듯 잠으락질하는 듯 풀 위로 나타났다가 숨었다 하는 그 엽뽕 발들은 마치 물속에 넘노는 은어(銀魚)와도 가뻘다. 어쩐지 나는 모든 것을 닛고 그 발에만 눈을 주고 잇었다. 10여년을 지난 오늘날에도 나의 기억이란 풀밭헤 그 발들은 잇다금 솟았다 감으로졌다 한다. 그 때도 물론 너름이었다. 지금 그 처녀들은 어대가 잇는가.

말이 빗나가아 열토당토 안흔 넷 이약이에 별사 정한 페이지는 채워지고

말았다. 문득 그 기억이 나고 보니 어느 사이에 나를 버리고 뒤거름을 처버린 과거가 돌아다 보이고 또 돌아다 보이며 탄 것을 쓰라도 쓸 수 없다. 너름이 되면 나는 맨발을 연상(聯想)한다. 그리고 어떠한 형용할 수 없는 안타가운 마음으로 그 처녀들의 현재와 장래를 생각한다.⁴¹⁾

위의 글은 「여름과 맨발」의 전문이다. 이 짧은 수필에서 현진건 글쓰기의 진수인 묘사가 돋보인다. 소녀의 하얀 발은 향한 시선과 소녀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로 인해 순결한 시골 처녀의 나물 캐는 정경에 몰입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안타까움’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분명 하얀 발이 풀숲을 나왔다 잠겼다 하는 인상적인 장면 다음에 막연한 불길함이 어른거린다. 그래서 그 처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고 자문하며 장래를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현진건의 묘사가 건져 올린 빈곤의 실상이 있다. ‘내’가 보았던 처녀들의 하얀 맨발에 대한 지배적인 인상,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보기에는 곱고 하얀 발이 디딜 수 있는 숲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발이 보이지 않는 하얀 발로 나무와 숲이 우거진 곳을 다니며 나물을 구하는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닌가. 어린 현진건의 눈에 비친 눈부시게 하얀 발은 가난으로 창백해진 빛깔일 것이다. 여름철에 밭에 심은 채소 대신 산에서 나물을 구하는 극빈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름에 맨발로 풀숲에서 산나물을 캐다고 한들 그 산나물은 질기고 역세어져서 먹을 수 없다. 보릿고개를 넘길 무렵 산 아래 언덕 위의 잡풀들 사이에 듭성듬성 자라는 식용 식물이 있다. 비름나물, 질경이, 엉겅퀴, 씀바귀, 천남성, 참반디 등, 오늘날 농가에서 제초제로 제거해버리는 식물이기도 하고 어쩌다 약용 식물로 관심을 끌기도 한다.

흰발로 나물을 캐던 처녀들, 현진건이 그날 보았던 그 처녀들의 모습, 작

41) 현진건, 「너름情趣, 너름情緒」, 『별건곤』 제14호, 1928.7.1.1.

가가 글을 쓰던 시점에서 그녀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었을까. 당시의 ‘안타까운 맨발’을 현재의 시점에서 현진건은 잠시나마 걱정을 해본 것이다. 소녀가 나물을 캐던 앞산 앞 들녘은 남의 땅, 빼앗긴 들일 터이다. 게다가 현진건이 어린 시절 보았던 처녀들, 그들은 성숙한 성인이 아닐 것이다. 이들을 관찰하는 소년 현진건 또래거나 15세를 넘지 않는 소녀들이었을 것이다. 가난은 식구 수를 줄이기 위해 어린 딸을 민며느리로 보내거나 조혼으로 출가시키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이기도 했다. 이른바 경상도 말로 ‘치우’는 것이다. 이 짧은 수필에서 현진건의 단편 「불」(1925)을 연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민며느리제와 같은 매매혼 풍속은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살인과 방화와 같은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도 상당하였다.⁴²⁾

으스스한 부엌은 벌써 저녁이나 된 듯이 어둑어둑해졌다. 무서운 밤, 지겨운 밤이 다시금 그를 향하여 싹꺼먼 아가리를 벌리라 한다. 해질 때마다 늦기는 공포심이 또다시 그를 음습하얏다. 번번이 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밤 피할 궁리로 하여, 그의 좁은 가슴은 쥐어 뜯기었다. 그럴 사이에 그 궁리는 나서지 안코 제 신세가 어떠케 불상하고 가엽슨지 몰랐다. 수백리 밧게 부모를 두고 식집을 온 일, 온 뒤로 밤마다 날마다 당하는 지긋지긋한 고생, 더구나 오늘 식어머니한테 두들겨 마진 일이 한엽시 설업고 슬혀서 솟아오르는 눈물을 꺾 갈을 수 업섯다. 주먹으로 췌다가 팔까지 저졌건만, 눈물은 꺾치지 안혔다.⁴³⁾

15살 된 순이가 장년의 남자와 결혼을 하여 겪는 시집살이는 하루하루가 폭력적이다.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인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시달리다 잠자리에 들면 건장한 남편이 밤새도록 성적으로

42) 국사편찬위원회 편,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두산 동아, 2005. 10, pp.230-234.

43) 현진건, 「불」, 『개벽』55, 1925.1, p.60.

괴롭히는 날들, 성에 무지한 15세 소녀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의 연속이다. 이 공포를 순이는 방화로 표현하였다.⁴⁴⁾ 「여름의 맨발」의 소녀 같은 순이는 가난으로 떠나면 곳에 시집살이를 온 것이다. 이 소설은 농촌은 여전히 전근대적 농경 사회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여성들이 가혹한 노동으로 혹사당하는 현실을 그려낸 것이다. 10대 소년이 바라본 맨발로 풀숲을 다니던 처녀, 하얀 발이 풀 속에 잠겼다 떠오르던 은어 같은 어린 발을 가진 처녀들의 장래를 성년이 된 시점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빈곤에 대한 현진건의 시선은 「고향」에서 관찰에서 보다 적극적인 고발의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

나는 놀랜 듯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담 두 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열네댓 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열일곱 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⁴⁵⁾

‘세상이 뒤바뀌어 동양척식회사가 역둔토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해외로의 유이민이 되었던 한 청년의 첫 사랑 이야기 역시 비극적이다. 「고향」은

44) 가난과 무지로 인한 민며느리제의 문제점은 가정 내 다양한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에도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두산 동아, 2005. 10, p.230. <참고>

45) 현진건, 「고향」, 『현진건전집』1, p.184.

기차간에서 만난 K군 H리 출신 청년이 보인 행색에서부터 그가 살아온 내력, 그가 그리워했던 고향의 황폐함을 통해 사라진 과거, 잃어버린 행복에 대한 원인을 증개하고 있다. 이 청년과 ‘혼담’이 오가던 이웃의 열일곱 살 된 처녀가 유곽에 팔려갔다는 사실을 통해 절대 빈곤으로 인해 야만적 상황이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현진건의 수필 「여름과 맨발」의 처녀에 대한 기억과 「고향」에서의 처녀는 같은 공간 같은 시대를 살아온 조선의 가난한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현진건은 체험적 가난을 작품화한 작가라기보다 발견된 사실을 사회적인, 또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한 사실을 작품화한 작가이다.

프로 작가들처럼, 가난 현상에 대해, 관념의 허위 속에 도식적 이해'에 머물지 않고, 작가가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나름의 비전을 전제로 탐구하는 가운데, 가난이 사회 구조에 미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그는 프로작가가 아니면서도 그들 이상으로 가난의 사회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추구한 작가라 할만하다.⁴⁶⁾

현길언의 위의 지적처럼 현진건은 프로 작가들이 보여준 빈부의 대결을 선악의 구도로 끌어가는 도식성과 거리가 먼 작품을 제시하였다. 「사립정신병원장」, 「서투른 도적」, 「운수좋은 날」, 「동정」, 「신문지와 철창」, 「고향」 등은 ‘인간 사회의 밑바닥을 파헤치고 암담한 세계를 그대로 노출했다는 점에서 참된 리얼리스트’ 이로 본다.⁴⁷⁾ 가난 문제를 작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작품으로 기록했던 것이다.

46) 현길언, 「가난에 대한 소설적 인식-현진건의 경우」, 『동아시아문화연구』,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86, p.235.

47) 김우중, 「집약의 상황도」, 『문학춘추』 1권 9호, 1964, p.245.

IV. 결론

현진건 소설의 대구는 고향이지 연민의 공간이다. 대구는 소설 속에서의 가족사의 공간이기도 하고 민족적 비극을 담은 등장인물의 삶을 조명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현진건의 성장과 서울에서의 정착은 한국 문학사에서 고발문학이자 사실주의 소설가로서의 등장을 의미한다. 문학사에서 현진건의 등장은 신학문을 먼저 받아들인 현진건의 친인척들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음을 「희생화」와 「지새이는 안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그 친인척으로 소설가로서의 길을 열어준 당숙 현희운, 직업인으로서의 길을 열어준 숙부 현영운, 역사의식을 일깨워준 삼종자형 최남선 등은 현재의 기준으로 불편부당한 이해관계로 볼 수 없는 점도 있다. 이는 현진건의 기자로서 남긴 자취와 작가로서의 성취로 말미암아 변재 될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전근대적 가족 중심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볼 때 가능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은 현진건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대구와 작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인물[후견인]들에 대해 자전적 소설을 토대로 논의했다. 작가의 생애의 일부를 작품 속에서 찾다는 것은 작품의 창조적 개성을 무시하고 특정 등장인물의 삶을 작가의 삶을 동일화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작가론적 입장에서 작품을 통해 작가의 체험적 요소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작가의 경험 세계가 지닌 신뢰할 수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진건의 신문 기자로의 입문과 작가로서의 등장에 대한 일화는 작품으로 얘기된 허구적 사실이 실제 체험적 근거로서 발설되었다는 전제로 논의된 것이다.

현진건의 작가로서의 등장에 대한 조력자[후견인]는 단편소설 「희생화」와 「지새이는 안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현진건의 첫 소설 「희생화」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가족사적 비극을 내포한 작품이다. 「희생화」는 <개벽사> 문예부장이던 당숙 현희운의 주선으로 『개벽』지에 발표되었다. 이 소설에서 독립운동가였던 셋째 형 현정건의 결혼 파탄의 시초와 해외 망명의 동기를 살필 수 있게 한다. 「지새는 안개」에서는 현진건이 기자로서 취업하게 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이 소설에서는 그간 알려져 있지 않았던 현진건의 숙부 현영운의 성격과 행적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희생화」, 「지새는 안개」는 「할머니의 죽음」에서와 같이 현진건 형제와 서울 친척들 간의 긴밀한 유대가 드러난 작품이다. 이 두 소설의 등장인물에게는 대구가 고향이라는 의미와 함께 가족사의 위기를 내포한 공간이다. 이 작품은 현진건의 출향과 기자, 작가로서의 등장을 얘기하지만 작가로서의 위상을 논의할 작품은 아니다. 하지만 근대 사실주의 작가로서의 성장 이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험적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데서 문학사적 의의는 지닌다. 나아가 현진건이 개인적 재능과 성공한 작가로서 뒤돌아 본 대구는 빼앗긴 땅, 빈곤의 땅으로서 민족사의 비극을 담아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현진건의 수필 「여름과 맨발」을 통해 현진건의 빈곤 소재 작품에 나타는 빈곤층에 대한 체험적 통찰과 연민을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 『대한매일신보』, 1908.1.1.
 『대한협회회보』 제12호, 1909, 3, 25.
 『매일신보』, 1916.5.5.
 『별건곤 제4호』, 1927.2.1.
 『신가정』, 1933.3.
 『신여성』, 1933.3.
 김구중, 「현진건 고향의 배경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 한국문학이론비평학회, 1997.
 김우중, 「집약의 상황도」, 『문학춘추』 1권 9호, 1964.
 김형목, 「우산 윤현진 일가(一家)의 민족운동」, 『민족사상』13(3), 2019.
 국사편찬위원회 편,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두산 동아, 2005. 10.
 백기만, 『씨뿌리는 사람들』, 문화서점, 1959.
 백두산인, 「己未春 變裝出境 昔日은 花柳名聲」-六年間消息업는玄桂玉來歷(1), 『동아일보』, 1925.11.1.
 백두산인, 「己未春 變裝出境 昔日은 花柳名聲」-六年間消息업는玄桂玉來歷(1), 『동아일보』, 1925.11.1.
 손숙경, 「조선후기 중인 역관의 동래 파견과 川寧 玄氏 현덕운 역관 家系의 분화, 그리고 중인 金範禹 후손들의 밀양 이주」, 『역사와 경계』 100, 2016.
 양진오, 『조선훈의 발견과 민족적 상상』,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총서, 2008.
 윤치호, 『윤치호영문일기(번역)』, 1904.4.26.
 이광수, 『무정』, 문학사상사, 1989.
 이상규, 「조선후기 川寧玄氏 家의 譯官活動」, 『한일관계사연구』 제20집, 한일관계사연구학회, 2004.
 이상화, 「文壇側面觀, 創作意義 缺乏에 대한 考察과 企待」, 『개벽』58, 1925.4.1.
 이익상, 「憑虛君의 〈貧妻〉와 牧星君의 〈그날밤〉을 읽은 印象」, 『개벽』11, 1921.5.
 『영조실록』107, 영조 42년 8월 5일,〈기사〉
 草土, 「現代女流思想家들(3), 붉은 戀愛의 主人公들」, 『삼천리』17, 삼천리사, 1931.7.1.
 최수일, 『1920년대 문학과 〈개벽〉의 위상』,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 최차호, 「조선 후기 왜어 역관 현덕윤 연구」, 『조선통신사연구』 제18집, 2014.
- 현길언, 『현진건 소설 연구』, 이우출판사, 1989,
- 현길언, 「가난에 대한 소설적 인식-현진건의 경우」, 『동아시아문화연구』,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86.
- 현인채, 『연주현씨 세보』, 대구, 연활자본, 1926.
- 현진건, 「사립정신병원장」, (이강언, 이주현, 조진기, 이재춘 공편)『현진건 전집』1, 국학자료원, 2004
- 현진건, 「〈開闢〉時代를 追憶하며, 當時에 執筆하든 諸氏의 紀念執筆」, 『별건곤』 30, 1930.7.1.
- 현진건, 「첫 기고의 회고」, 『開闢』時代를 追憶하며, 當時에 執筆하든 諸氏의 紀念執筆, 『별건곤』30, 1930.7.1.
- 현진건, 「녀름情趣, 녀름情緒」, 『별건곤』 제14호, 1928.7.1.1.
- 현진건, (이강언, 이주현, 조진기, 이재춘 공편)『현진건 전집』6, 국학자료원, 2004, pp.175-177.
- 현진건, 「지새는 안개」, 『개벽』38, 1923, 8.1.
- 현철, 「批評을 알고 批評을 하라, 時事新聞의 微蛻 君과 **잇는 黃君에게 答」, 『개벽』 6, 1920.12.1.
- 황석우, 「犧牲花와 新詩를 읽고」, 『개벽』6, 1920.12.1.

Abstract

Hyeon Jin-Geon's Literary Patrons and Personal Talent

- With a focus on his Sacrificial Flowers and Overnight Fog

Nam, Sang-Kwon

This study discusses Daegu, where Hyeon Jin-geon spent his childhood, and the contributors patrons who contributed to his growth as a writer based on his short stories “Sacrificial Flowers” and “Overnight Fog.” His first short story, “Sacrificial Flowers,” involves a mysterious tragedy in the history of his family. It was published in Gaebyeok thanks to the arrangement made by Hyeon Hee-woon, his uncle and the head of the literature department at Gaebyeoksa. This story hints at the beginning of the failed marriage of his third brother, Hyeon Jeong-geon, who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and his motivation for going into exile overseas. “Overnight Fog” depicts Hyeon Jin-geon's employment as a reporter. This story also reveals the whereabouts of Hyeon Yeong-woon, another uncle of his, who had been unknown to the public. Both the stories show the close relationships and solidarity among his brothers and relatives in Seoul. Daegu is not only the author's home town, but it also symbolizes the crisis of their family history to the characters of the stories. Looking back on the city as a successful writer, however, Hyeon Jin-geon saw Daegu as a land that had been taken away, a town of poverty, and a placeholder for the tragedy of Korea's national history. He expresses his experiential insight into and compassion for the poor in his essay “Summer and Bare Feet” as well as in other works.

Key Word : autobiographical novel, patron, personal talent, Hyeon Jeong-geon,
Hyeon Yeong-woon, Hyeon Hee-woon, family history, national
history, poverty

남상권

소속 : 영남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강사

전자우편 : yipap@hanmail.net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5일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12월 18일 게재 확정됨.